'新발견' 말레이시아 고대 불교 유적 '화제'

밀림 속 유적군서 불교사원 발견
8~9세기 경 구성된 것으로 유추
거의 완전한 상태 소조불상 발굴
"발굴 사원 중에 가장 큰 규모"

박영빈 객원기자


유적지에서 발견된 등신대의 소조여래상. 사진출처=더 썬

말레이시아 밀림 속의 고대 유적군에서 불교 사원유적과 귀중한 유물들이 발굴돼 화제다. 특히 거의 완벽한 상태로 출토된 등신대의 소조불상이 대중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6월 29일 '말레이 메일' '아시아 뉴스' '더 썬' 등의 외신은 새롭게 발굴된 고대 불교유산들에 대해 집중보도했다.

세계고고학연구센터(PPAG)의 나샤 콰(Nasha Khaw) 박사가 이끄는 말레이시아 세인즈 대학의 발굴연구팀은 최근 말레이시아 북서부 케다주에 소재한 부킷 초라스(Bukit Choras) 유적군에서 지금껏 발굴한 사원 유적 가운데 가장 큰 불교사원 유적을 발견, 내부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은 소조불상을 발굴했다.

부킷 초라스 유적군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발굴이 시작된 고대 유적군으로 8~9세기경에 만들어진 불교사원과 마을 유적군이다. 현재 3차 발굴조사가 진행된 유적들에선 이미 많은 불교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러나 거의 완전한 상태의 등신대 소조불상이 발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발굴팀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굴조사에서 조사한 곳은 부킷 초라스 유적군에서 발굴한 불교사원 유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유적"이라고 말했다. 발굴팀은 "불상은 사원 북쪽 벽에서 발견됐으며 석회, 물, 모래를 섞은 회반죽의 일종인 스투코(stucco)로 조성됐다"면서 "편단우견의 가사를 입고 결가부좌를 했으며, 선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의 여래상이다. 상호표현, 가사의 주름과 묘사, 수인 등 도상적 특징이 뚜렷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한 불상 근처에서 "돌에 새겨진 산스크리트어 명문과 토기 파편도 발견됐다"면서 "특히 산스크리트어는 연기법에 대한 짧은 게송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대 불상과 불탑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발굴팀은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머리 부분이 소실된 2구의 불상을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사무총장 다툭 압둘 라흐만은 "이번 발굴의 시대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이나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훨씬 앞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인도네시아의 유물은 9세기, 캄보디아의 유물은 12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서기 7~8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툭 사무총장은 "이 발견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차이나와 말레이 군도의 문명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된다"면서 "특히 외부 세계와의 종교적, 문화적, 예술적, 기술적 연결과 교류가 일찍부터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국립 문화유산부와 말레이시아 세인즈 대학은 발굴된 유물들을 대학 연구실로 임시 이동했으며 보존처리 작업과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발굴팀과 대학 측은 추가적인 발견이나 정보가 정리되는 대로 유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굴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원의 북쪽과 서쪽 벽의 구조적 요소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킷 초라스 사원의 주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 미국서 무릎 수술 후 회복 中

6월 28일, 뉴욕서…다음날 퇴원
주치의 "수술 성공적…곧 완쾌"


지난 23일 뉴욕에 도착한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무릎 치료를 위해 방미한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지난 6월 28일 뉴욕의 병원에서 성공적인 무릎수술을 받은 후 다음 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30일, '자유 아시아 방송'은 병원 측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달라이라마의 근황을 전했다.

뉴욕 특수외과 병원의 성인 관절 재건 및 치환술 책임자인 데이비드 J. 메이먼 박사는 "달라이라마의 수술은 성공적"이라며 "곧 완쾌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29일 토요일 아침에 퇴원했다"고 말했다. 메이먼 박사는 "달라이라마의 주치의팀과 사무국은 당원의 외과 및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우리에게 신뢰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음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6월 23일 뉴욕에 도착했고, 며칠간의 휴식을 취한 후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인 체텐 D. 사뒤창 박사와 사무국 비서 텐진 탁라는 28일 수술 직후 달라이라마 공식 유튜브와 SNS 계정을 통해 "달라이라마 존자의 무릎 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수술은 28일 오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현재 모든 신체적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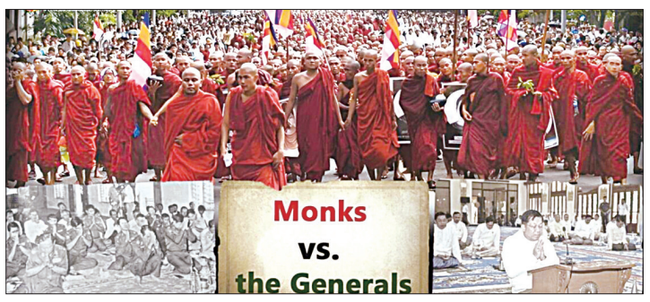
달라이라마는 퇴원 후 현재 숙소인 뉴욕 맨해튼의 호텔로 돌아갔다. 미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과 지지자들은 병원과 호텔 밖에 모여 꽃과 향 등을 들고 달라이라마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호텔 앞에서 달라이라마를 환영한 티베트인 체미 유돈은 "존자님의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면서 "티베트인으로서 이렇게 멀리서라도 뵐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현재 달라이라마는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후 미국 체제 기간이나 공개적인 대중행사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다. 한 소식통은 "나이와 수술 후 최소한의 재활을 생각했을 때 8월 중순까진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고승 총격' 뿔난 미얀마 불교계, 정권 보이콧

만달레이 승려 협회 중심 정권 보이콧 확산



미얀마 정부의 고위 승려 총격 이후 불교도들의 분노가 거세지며 '정권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이와라디닷컴

미얀마 정부가 고위 승려 살해 사건 이후 '불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불교도들의 분노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주요 도시 곳곳에서 승려들의 집단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만달레이 승려 협회를 중심으로 '정권 보이콧' 움직임까지 발생됐다.

지난달 6월 24일 미얀마의 온라인 매체 '이라와디닷컴'(irrawaddy)에 따르면 최근 만달레이 승려 협회가 정권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후 데파인, 살링이, 타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만달레이에서 불교계 원로 승려 바단타 무닌다비완사(78)가 총격을 당해 입적했다. 그는 남부 바고시(市) 유명 대형 불교 사찰인 '윈 네인미타욘' 주지이자 미얀마 불교계 최고 의사결정 기구 '상가 마하 나야카 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얀마 불교계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미얀마 군부는 당초 저항군인 시민방위군(PDF)의 지뢰 테러로 무닌다비완사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총격 사건 당시 현장에서 탈출한 다른 승려가 SNS에 "군부가 공격했다"고 폭로하면서 급반전을 맞았다.

이후 여론이 들끓자 군부는 "군부 측 공격으로 승려가 숨졌다"고 공개 사과했다. 군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은 2021년 2월 쿠데타 발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불교계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인구 90%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승려들은 각종 정부 행사 및 기조에 반할 것을 공식 천명했고, 전국의 다른 승려들과 불자들에게 자신들의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차웅우 마을의 쉐와랑 사야도 우 자나야 스님은 "우리는 용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불매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서 말했다.

미얀마 불교계의 정권 보이콧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8년과 1990년, 2007년에도 불교도들의 정권 보이콧 선언이 있었다. 특히 2007년의 경우엔 정부의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이른바 '샤프란 혁명'에 참여한 스님들을 기둥에 묶어 폭행한 일이 발단이 됐다.

한편 인권단체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은 5300명이 넘는다. 박정현 객원기자

'맨발의 순례자' 언급 누리꾼에 벌금 '논란'

베트남 정부, 레안투 언급에
게시물 44건 이유로 300달러


'맨발의 순례자' 레안투. 사진출처=RFA

베트남 정부가 SNS에서 '맨발의 순례자'로 유명한 레 안 투(Le Anh Tu)를 언급한 누리꾼에게 벌금을 부과해 논란이다. 지난 6월 26일 RFA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닉네임 'T.D.T.'를 사용하는 누리꾼에게 벌금 약 300달러를 부과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의 순례 관련 영상과 소식을 공유했다. 베트남 국영언론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투와 관련해 44개의 뉴스와 기사를 공유했다. 국영언론은 이를 두고 "당국의 위신을 모욕한 것"이라며 "투는 여론을 이용해 정부에서 공인한 베트남 불교 승단을 모욕하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투는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삭발한 머리, 수선한 가사 3벌, 오래된 탁발 그릇만을 들고 2017년부터 베트남 전역을 순례 중이다. 이후 몇몇의 유튜버들이 이러한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고, 사람들은 각종 부패로 얼룩진 베트남 고위 승려들과 그를 비교하며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열광했다. 그러나 당국은 투가 정식 승단에 속하지 않는 비공식 승려라는 이유로 지난달 초 돌연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강제 구금시켰다. 박정현 객원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 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0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7일
8월 27일 출발~9월 2일 도착(7일간)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300여 년전 인도네시아에서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내던 시기에 조성된 세계최대의 불탑으로 부처님의 생애가 462개의 커다란 벽면에 상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또한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4선지식을 찾아가는 내용을 조성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동참금 | 26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 9월 21일~28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티베트 성지순례 8일
영혼의 고향이라는 티베트,
그곳에서 불교의 깊이와 신심을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출발일 : 8월 20일~27일
동참금 | 29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샤캬–시가체–체탕–삼예–인천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5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